

사고 땀 청소·교통·도로 담당 부서와 정보 공유... 시민 안전 최우선



뉴욕소방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통제센터. 센터 근무직원들은 모두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고참들이 많아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③ 뉴욕의 똑똑한 도시 정책

④ 스마트 안전

뉴욕소방서 리더로 협력시스템 구축

경험 풍부한 대원 중앙통제센터 배치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 정보 수집

출동부터 주변정리까지 '시민안전' 실감



뉴욕소방서의 사건·사고 대응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에밀리 라히미(Emily Rahimi·여·좌) 소셜 미디어 디렉터와 티모시 허로커(Timothy E. Herlocker) 중앙통제센터 디렉터.

13년 전인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뉴욕은 미국 내 도시 중에서도 우수한 소방·재난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제 시간에 동원·공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에 있다. 뉴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뉴욕소방서(Fire Department of New York)는 신고부터 출동에 이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있다. 수석 관리자가 수집된 정보로 재난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대원들을 출동시키는데 걸리는 최대한의 시간을 제한해둔 것이다.

9·11 테러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뉴욕소방서 소방관(1만 1400여명)의 3%가 사망하면서 나름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CCTV(무인카메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통로를 거쳐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시민들을 상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만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시민들에게 접속을 강제하기보다는 홍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뉴욕소방서를 알리면서 '소통'하고 있었다.

에밀리 라히미(Emily Rahimi·여) 소셜 미디어 디렉터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신디 당시 전기, 가스, 인터넷 등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주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소방서와 연결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은 뉴욕소방서 홈페이지나 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으며, 이 공간을 통해 소방서 역시 사건·사고 시 대처 요령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소방서는 소방서 중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9년 트위터에 등록할 정도로 SNS를 중시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경험이 풍부한 소방대원들을 정보센터에 배치, '연료'를 통해 판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통제센터로 수집되는 정보를 오랜 근무경력을 가진 소방대원, 응급요원들이 분석한 뒤 수석 관리인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선별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1400여 건에 이르는 화재 등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그 가운데 5건은 피해가 큰 대형 사고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 정보로 상황을 파악하는 판단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티모시 허로커(Timothy E. Herlocker) 중앙통제센터 디렉터는 "응급요원 3500명과 소방대원 75명이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뉴욕시의 청소, 교통, 도로 등을 담당하는 40여 곳의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사건·사고의 해결이 아니라 출동부터 이후 주변 정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이 사건·사고 발생 이전과 비슷하도록 유지시켜 시민들에게 '안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티모시 허로커 디렉터는 "모든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있어서 소방당국의 리더십 하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몇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뉴욕소방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이를 따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허리케인 신디 당시 뉴욕 남부가 물에 잠겨 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시민들이 대피를 거부한 적도 있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에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예측해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갖춰가고 있다. 건물마다 화재 등 사건·사고 연혁을 조사하고 중요 건물에는 센서를 부착해 정보를 수집, 불이 나기 직전에 출동에 바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피시킨 후 천장이 무너지는 등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에밀리 라히미 디렉터는 "스마트 시티는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분야를 맡고 있는 각각의 기관 또는 부서가 시민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도시"라고 정의한 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 기획은 지방선발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거리마다 교통체증·도로 폭 등 감안 주차 시간·차종 세분화 주차안내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미국 모든 도시에는 거리마다 다른 규제 내용을 적은 주차안내판이 있다. 각 거리마다 교통체증 정도, 도로의 폭, 점포의 수 등 특징을 감안해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나 차종 등을 별도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황색 실선지역을 주차장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속·견인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주차장 단속·견인의 형평성을 상실하면서 불만만 사는 것보다 도로나 주변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주차안내판에 따르면 해당 거리는 월~금요일 오전 7~10시 오후 2~7시는 주차할 수 없으며,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오로지 거리 점포를 위한 교통수단만이 3시간 동안 요금을 내고 노상주차가 가능하다. 또 월~금요일 오후 7~10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는 1시간 동안 모든 차량이 요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고 있다. '금지', '부분 허용', '허용'의 내용을 모두 다른 색채로 전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TRIAISHUIMA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이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